

# 『삼봉집』의 간행과 편성\*

A Study on the Contents and Publication of *Sambongjib*

오 용 섭 (Oh, Yong-Seob)\*\*

## ◁ 목 차 ▷

1. 서 언	3.3 삼간본
2. 저술과 사상	4. 권차별 내용편성
3. 『삼봉집』의 간행	5. 결 언
3.1 중간본과 중간속간본	<참고문헌>
3.2 중간속간본의 특성	

## < 초 록 >

『삼봉집』은 정도전의 저술을 모은 전집이다. 1397년에 처음으로 시문 약간을 2권으로 엮어 간행한 것이 초간본이다. 1465년에는 저자의 증손인 정문형이 7권으로 만들어 『삼봉선생집』이라는 서명으로 중간하였고, 1487년에는 더 수집한 120여장 분량을 속간하였다. 이후 1791년에는 규장각 학사들이 주도하여 다시 『삼봉집』이라는 서명으로 삼간하였다. 이렇게 『삼봉집』은 초간본부부터 삼간본까지 『삼봉집』, 『삼봉선생집』, 『삼봉집』의 순서로 서명이 변경되었고, 또 분권 또는 재편되면서 각 간본 간의 내용 편성도 어긋나게 되었다. 그래서 『삼봉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삼봉집』의 역대 간행사실을 확인하고, 각 간본의 권차별 수록내용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삼봉집』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要語: 『삼봉집』, 『삼봉선생집』, 삼봉, 정도전, 정문형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0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uki@incheon.ac.kr)

접수일: 2011년 6월 1일 최초심사일: 2011년 6월 3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18일

<ABSTRACT>

*Sambongjib* is the collection of Jeong Do-jeon' writings, and its first edition was published in two volumes as the selection of several poetry and prose in 1397. *Sambongseonsaengjib*, its second edition, was later published in 7 volumes by Jeong Mun-hyeong, his great-grandson in 1465, and re-published with the addition of over 120 leaves in 1487.

In 1791, the scholars of Gyujanggak rearranged the contents and published it with the title of *Sambongjib* as the third edition. With the continuing publication, the title changed from *Sambongjib*, to *Sambongseonsaengjib* and again back to *Sambongjib*, and the order of contents also changed in each edition with the separation and rearrangement of volumes. Therefore, most people were confused with the arrangement and contents of *Sambongjib*.

In this study, the history of publishing *Sambongjib* was examined and the contents of various volumes in each edition were compared to lessen such confus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uld help users with an interest in *Sambongjib* better understand its content and history.

Key words: *Sambongjib*, *Sambongseonsaengjib*, Sambong, Jeongdojeon,  
Jeongmoonhyung

## 1. 서 언

「삼봉집」은 태조 6년(1397)에 鄭道傳(?~1398)의 시문 약간을 모아 아들 鄭津(1361~1427)이 2권으로 간행한 것이 처음이다. 이후 세조 11년(1465)에는 저자의 증손인 鄭文炯(1427~1501)이 「陳法」, 「經濟文鑑」, 「朝鮮經國典」, 「佛氏雜辯」, 「心氣理篇」, 「心問·天答」 등을 증보하여 「삼봉선생집」이라는 서명으로 안동에서 간행하였다. 정문형은 또 강원도관찰사로 재임 중인 성종 18년(1487)에 「경제문감별집」과 세조 11년 간행이후 수집한 詩賦들을 모아 속간하였다.<sup>1)</sup>

정조 15년(1791)에는 규장각 학사들이 저작을 재편집하고, 교정과 주석을 거쳐 다시 「삼봉집」이라는 서명으로 간행하였다. 이 때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별집」은 상하로 분권하고, 습유와 부록을 보충하여 모두 14권으로 편성하였다.<sup>2)</sup>

이렇게 「삼봉집」은 초간본부터 삼간본까지 「삼봉집」, 「삼봉선생집」, 「삼봉집」의 순서로 서명이 변경되었고, 또 분권 또는 재편집되면서 각 간본 간의 내용편성도 어긋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 권으로 된 「불씨잡변」은 단행본으로 간행된<sup>3)</sup> 이후, 「삼봉선생집」에는 권7,<sup>4)</sup> 「삼봉집」에서는 권9,<sup>5)</sup> 또 권5에 편성된 것<sup>6)</sup>도 있는 등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현재 국내에 전하는 「삼봉집」은 정조 15년(1791) 간본이 대부분이며, 이전의 간본은 드물게 전한다. 현재 규장각에는 정조 15년(1791) 간본 중에서 內賜印이 찍혀있는 옛 史庫所藏本이 4종이 있다.<sup>7)</sup> 이 중에서 善本인 태백

- 
- 1) 세조 11년(1465) 중간본과 성종 18년(1487) 중간속간본은 판식이 완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 중에서도 어미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원각본은 무어미, 속간본은 내향흑어미이다.
  - 2) 「삼봉집」 간행에 대한 초기연구는 스에마쓰 카즈요시(末松保和)의 “三峯集編刊考,” (『朝鮮學報』 第1輯, 奈良: 朝鮮學會, 1951)가 있다.
  - 3) 「三峯先生佛氏雜辯」 세조 2년(1456) 간본.
  - 4) 「삼봉선생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고귀3648-70-1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1465년 간본은 현재 권7(「불씨잡변」)만 전하고, 일본의 호사(蓬左)문고에는 7권4책의 완질본이 전한다. ; 衫浦豊治, 「蓬左文庫典籍鼓録: 駿河御讓本」(一宮: 人文科學研究會, 1975), 139-140.
  - 5) 정조 15년(1791) 간본.
  - 6) 「국역삼봉집」 I·II(고전국역총서 120-121) (서울: 민족문고간행회, 1977)에 수록된 영인본.
  - 7) 규장각에는 정조 15년(1791) 간본 7종이 전한다. 그 중에서 규2957(내사본), 규726(내사본), 규4722(내사본), 규3536(내사본) 등 4종은 완질이고, 규3081(내사본으로 弘文館이라는 인장이 있음: 권1-2, 권7-14의 5책), 규3082(권1-2, 권7-14의 5책), 규3083(권1-2의 1책)

산 사고본(규2957)<sup>8)</sup>과 정족산 사고본(규726)이 영인이나 국역의 대본이 되었다.

한편 『국역삼봉집』에는 “이 책의 국역대본은 규장각 소장의 태백산본이다.” 그러나 해제에서 “정족산 소장본과 태백산 소장본이 가장 완벽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고, 역서는 이들을 저본으로 한 것”<sup>9)</sup>이라고 해놓았다. 그러나 함께 수록된 영인 원본은 정족산 소장본이나 태백산 소장본이 아니다.

이러한 혼란은 『삼봉집』의 간행과 권차별 내용편성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삼봉집』의 역대 간행사실과 각 간본의 권차별 수록내용을 밝혀 후일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저술과 사상

정도전은 태조 4년(1395) 10월에 새로운 수도의 궁궐과 殿, 門의 이름을 모두 짓는 등 조선의 개국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향후 조선을 이끌어 갈 정치철학 사상을 갖추고자 하였다. 사실 이러한 사상의 표출은 고려 우왕 1년(1375) 12월에 『심문·천답』을 완성하는 등 이전 왕조의 말기부터 비롯되고 있었다. 개국 이후 그는 여러 분야의 저술을 계속해서 완성해 나갔다. 먼저 태조 3년(1394)에는 『조선경국전』을 지어 왕께 올림으로써<sup>10)</sup> 조선

---

등은 결본이다. 그런데 “五臺山城”이라고 墨書되어 있는 규3536은 권5-6의 1책은 필사본으로 보충되어 있다. 그러므로 간본만으로 成帙된 것으로는 규2957, 규726, 규4722 등 3종이 완결인 셈이다. 이 3종 중에서 규2957은 “太白山城”, 규726은 “鼎足山城”이라는 목서가 있는데 비해 규4722는 목서가 없고 책의 크기도 작다. 그래서 완결여부, 내사본, 사고소장본, 인쇄와 장책상태 등을 볼 때 규2957과 규726이 선본이 된다. 그래서 이 간본이 활자본 또는 영인본의 대본이 되었다. 이중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활자본 『삼봉집』은 정족산본인 규726을 저본으로 삼았고, 민족문화추진회에서 한국문집총간(5)으로 영인한 『삼봉집』은 규2957로 저본으로 삼았다. 이후 간행된 『삼봉집』은 규장각2957의 영인본이거나 이 간본을 대본으로 삼은 것으로 보면 된다.

8) 『삼봉집』 영인표점한국문집총간 5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0). ; 『한국역대문집총서』, 101-102 (서울: 경인문화사, 1994).

9) 『국역삼봉집』 I · II(고전국역총서 120-12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22(해제), 23(일러두기 1). 이 글은 국역본의 대본에 한정해서 쓴 글로 보이기도 한다.

의 건국이념과 통치철학을 제시하였다. 또 정통왕조의 법제를 운영하는 사람을 위한 경계서인 「경제문감」<sup>11)</sup>과 「경제문감별집」<sup>12)</sup>을 차례로 저술하였다. 「경제문감」은 ‘경제제민에 필요한 경계의 문장’이라는 의미로<sup>13)</sup> 재상 이하의 신하를 대상으로 삼았고, 「경제문감별집」은 군주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봉건사회의 신분질서에 대한 정도전의 시각은 불평등한 지배와 예속관계로 본 것만은 아니다. 곧 “상하질서의 계층사상은 도덕적 책임과 현실적 권리가 공존함으로써 인간관계에 있어서 평등과 차별이 병존하면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sup>14)</sup>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도전이 정치사상을 현실에 적용하여 만들어진 조선왕조는 주자의 정치체제론·권력구조론이 반영된 것”<sup>15)</sup>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고 하겠다.

정도전은 태조 3년(1394)에 「심기리편」,<sup>16)</sup> 태조 7년(1398) 여름에는 「불씨잡변」을 완성하는 등 철학사상의 저술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불교계를 혁파하기 위한 명분으로 저술한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군사국방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진법」을 저술하는 등 그의 관심은 정치철학사상에 한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도전은 탁월한 식견으로 국가를 경영하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저술을 단시간에 완성하였다.

그러나 그의 척불사상과 주자학에 대한 이해정도 등에 대한 현재의 평가는 엇갈린다. 그 중에서 척불사상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이다. 곧 한 편에서는 「불씨잡변」이나 「심기리편」 등에서 보여준 척불사상에 대해 “불교비판은 정치사상가

10) 「太祖實錄」 5卷, 3年(1394) 5月 30日. “判三司事鄭道傳, 撰進朝鮮經國典.”

11) 「太祖實錄」 7卷, 4年(1395) 6月 6日. “判三司事鄭道傳, 撰經濟文鑑, 以進.”

12) 「삼봉집」 권14, 부록 사실. “丁丑(太祖 6, 1397) 五月 … 是歲, 著經濟文鑑別集.”

13) 박홍규, “정도전의 경제사상,” 『아세아연구』 제50권 3호(통권 129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7), 171.

14) 정낙찬, “삼봉 정도전의 교육사상,” 『교육철학』 제14집(한국교육철학회, 1996), 223.

15) 도현철, “정도전 「경제문감」의 주자 글 援用과 그 의도,” 『실학사상연구』 10·11합집(역사실학회, [1999]), 298.

16) 심기리편은 心難氣(심이 기를 비난한다), 氣難心(기가 심을 비난한다), 理論心氣(이가 심과 기를 타이른다) 등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심은 불교, 기는 도교(도가), 이는 유교를 의미한다.

가 새로운 사회를 개척하고자 의도적으로 시도한 방편적인 작업이었다.”<sup>17)</sup>거나 “정치 권위에 대한 집착과 충성심을 강화시키려는 정치 권력적 목적에서 계산된 의도를 가지고 단선적으로 주장된 것”<sup>18)</sup>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편에서는 “비판의 철저성에 있어서나 이론체계의 논리성에 있어서나 당시의 중국과 일본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sup>19)</sup>고 주장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평가와 함께 “이 땅에서 불교를 비판한 전무후무한 대표적 논술로 평가할 만하지만 불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불교배척을 그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한 것”<sup>20)</sup>이라는 절충적이면서 온건한 평가도 있다.

또한 주자학에 대한 이해정도 역시 완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곧 “주희의 철학체계에 대해 이해하고는 있었지만 논리적 구성이나 이론적 문제까지는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자학 체계보다는 孔孟의 유학 정신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sup>21)</sup>는 것이다. 이 말은 정도전의 치밀하지 못한 논리로 보아 “주자학에 대한 저자의 이해 정도는 개론적인 수준 혹은 정치사상가의 이해”<sup>22)</sup>로 한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도성과 이해정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정치경제와 군사국방은 물론 철학사상에 이르기까지 각기 엮은 그의 저술은 당시 새로운 국가를 경영하는데 요구되는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씨잡변」을 저술한 지 수개월이 지난 태조 7년(1398) 후기에 반역혐의로 이방원 일당에게 죽임을 당하면서<sup>23)</sup>

17) 안재호, “「불씨잡변」에 드러난 정도전의 불교비판 분석: 주자학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동서철학연구』 제53호(한국동서철학회, 2009), 327.

18) 부남철, “조선 유학자가 佛敎와 天主教를 배척한 정치적 이유,”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1호(한국정치학회, 1996), 104.

19)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개정판(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52.

20) 朴洪植, “麗末鮮初의 斥佛論爭,” 『유교사상연구』 제11집(한국유교학회, 1999), 185, 175.

21) 안재호, “「불씨잡변」에 드러난 정도전의 불교비판 분석: 주자학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동서철학연구』 제53호(한국동서철학회, 2009), 316.

22) 안재호, “「불씨잡변」에 드러난 정도전의 불교비판 분석: 주자학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동서철학연구』 제53호(한국동서철학회, 2009), 326-327.

23) 『太祖實錄』 7年 8月 26日. “奉化伯鄭道傳, 宜城君南閻, 及富城君沈孝生等, 謀害諸王子, 不克伏誅.”

그의 저술들은 드러나지 못하였다. 이후 50여년이 지난 세조 11년(1465)에 증손인 정문형이 「삼봉선생집」이라는 서명으로 여러 저술을 합편하여 간행함으로써 후대에 전하게 되었다.

### 3. 「삼봉집」의 간행

「삼봉집」은 정도전의 아들인 정진이 그의 시문 약간 권을 모아 成石璘(1338~1423)의 선별, 權近(1352~1409)의 批點과 서문, 李穡(1328~1396)과 權仲和(1322~1408)의 발문<sup>24)</sup>을 덧붙여 태조 6년(1397)에 간행한 것이 초간본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진의 발문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sup>25)</sup> 그러나 우왕 10년(1384)에 지은 이색의 발문을 보면 정도전이 직접 “시문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와서 발문을 청하였다.”<sup>26)</sup>고 하므로 정도전 자신이 이 책을 간행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초간본 「삼봉집」은 정진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간행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이 2권으로 된 초간본이다. 이 초간본은 아직까지 공개된 것이 없어서 수록된 시문들은 후대의 간본을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태조 7년(1398)에 정도전이 죽임을 당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저자의 저술들은 공개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야 그의 저술들이 간행되기<sup>27)</sup> 시작하더니 마침 증손인 정문형<sup>28)</sup>이 경상도관찰사로 임명된 지 9개

24) 「삼봉선생집」 권1의 권말. “洪武甲子(高麗 禔王10,1384)秋七月韓山牧隱李穡跋.” 이 발문에 이어 권중화의 글이 있는데, 정조 15년(1791) 간본에는 이 두 발문에 대해 “鄭宗之詩文錄跋”이라는 발문제를 붙여 놓았다.

25) 정진, [중간본 발문](「삼봉선생집」 권7 권말), 「삼봉집」 권14, 부록, 제현서술. “家君作詩文 … 以著述雖多, 存者無幾 … 今所刊詩文若干卷, 是也 … 洪武三十(태조 6, 1397)年九月日 男資憲大夫領原州牧使事兼管內勸農管學馬節制使[鄭]津謹跋.”

26) 李穡, [跋文](「삼봉선생집」 권1의 卷末), 鄭宗之詩文錄跋(정조 15년 간본). “一朝, 以所作詩文, 來請跋其尾.”

27) 「三峯先生佛氏雜辯」은 尹起畎이 體泉에서 世祖 2년(1456)에 간행하였다.

28) 「奉化鄭氏大同譜」(서울: 봉화정씨대중회, 2002)에 따르면, 정도전은 초간본을 간행한 津과

월 만인 세조 11년(1465) 7월에 『삼봉선생집』을 안동에서 간행하였고, 또 성종 18년(1487)에 강원감사로 부임하자 바로 『삼봉선생집』 간행이후 수집한 詩賦와 『경제문감별집』 등을 속간하였다.

정조 15년(1791)에는 규장각학사들이 주도하여 다시 『삼봉집』이라는 서명으로 간행하였다. 간행 당시 저본은 규장각 소장의 抄本과 정도전의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던 간본이었다. 그러나 초본은 탈락되거나 틀린 글자가 있는데다 간본 역시 완전하지 않아 바로잡는 일이 무척 어려웠다고 하였다.<sup>29)</sup> 일제시기인 1914년에는 정조 15년(1791)에 새긴 목판의 결판과 賜諡教旨, 致祭文 등을 보충하여 속간하게 된다.<sup>30)</sup>

### 3.1 중간본과 중간속간본

세조는 동왕 10년(1464) 11월에 정문형을 “문무를 겸비한 인재여서 품계를 더하여 경상도관찰사로 임명”<sup>31)</sup>하게 된다. 정문형은 이듬해 7월에 정도전의 저술에 대해 “옛날의 판본이 흩어져서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흩어진 것들을 모아 안동에서 간행”<sup>32)</sup>하였으니 이것이 중간본이다. 이 때 시문 외의 여러 저술까지 7권4책으로 엮고, 서명은 『삼봉선생집』이라고 하였다.<sup>33)</sup> 그런데 정문형이 경

---

泳, 游 등 아들 셋을 두었다. 맏아들인 津은 來와 束 등 아들 둘을 두었는데 정문형은 둘째아들인 束의 맏아들이다.

29) 『삼봉집』, 정조 15년(1791) 간본, 범예. “內閣抄本, 乃是全書, 而河浩甫字銘, 陣法等篇, 佚於抄本, 得之後孫, 分類收錄 … 抄本, 章段脫缺, 字句訛謬, 刊本, 亦頗不完, 最難攷正.”

30)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

31) 洪貴達 撰, 鄭文炯墓碣. “世祖用人, 急全才, 公游於藝, 尤善射侯, 上謂公有文武才, 獨注意遷擢, 由參議特命, 加階爲慶尙道觀察使.”

『世祖實錄』, 34卷, 10年 11月 8日. “鄭文炯, 慶尙道觀察使.”

32) 정문형, [중간본 발문](1465). “諸篇舊有板本, 散落不完. 文炯今哀集爲一帙, 刊于安東府.”

정문형, [중간속간본 발문](1487). “諸篇舊有板本, 散落不完. 文炯去甲申冬, 濫蒙世祖大王恩遇, 特受慶尙道觀察使, 哀集諸篇爲一帙, 刊于安東府.”

33) 당시 刊役명단이 중간본의 권미에 전한다. 정문형과 함께 주역을 맡은 인물은 慶尙道都觀察黜陟使이던 鄭忠基이었다. 또 교감은 尙州 儒學教授官인 趙瑞廷과 卞州 유학교수관인 趙暉, 필서는 卞州幼學인 河孟 등이 맡았다.

상도관찰사로 재직한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며,<sup>34)</sup> 또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일을 마무리 지은 사실을 볼 때 간행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두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정문형은 신숙주의 서문<sup>35)</sup>을 받아 초간본에 있던 권근의 서문 다음에 수록하고, 이어 시문, 잡제, 「진법」, 「경제문감」 상하, 「조선경국전」, 「불씨잡변」, 「십기리편」, 「심문·친답」 등의 차례로 편성하였다. 이 중 시문은 雜詠, 錦南雜詠,<sup>36)</sup> 잡영, 奉使雜詠,<sup>37)</sup> 잡영,<sup>38)</sup> 重奉使錄,<sup>39)</sup> 잡영,<sup>40)</sup> 後重奉使錄,<sup>41)</sup> 잡영<sup>42)</sup> 등의 순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이 초간본에 수록된 시문의 배열을 그대로 옮긴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국내에 전하는 이 간본은 권1-5와 권7 등이 있고,<sup>43)</sup> 일본의 호사(蓬左)문고에는 7권4책의 완질이 전한다.<sup>44)</sup>

34) 「世祖實錄」 38卷, 12年 閏3月 25日. “以鄭文炯, 爲咸吉道節度使.”

35) 신숙주의 서문은 「保閑齋集」 권제15에 수록되어 있다. 序題는 “新刊三峯鄭先生集序”이며, 지은 시기는 “成化元年(1465)乙酉 季夏有日”로 되어 있다. 그런데 중간본에 수록된 신숙주의 서문말미에는 “成化元年乙酉 孟秋有日”로 한 달의 차이가 있다. 아마 서문을 지어달라는 정문형의 부탁에 신숙주는 중간본을 간행하기 한 달 전인 6월에 지어 주었고, 그 해 7월에 간행(정문형의 발문에는 “成化元年乙酉 秋七月 上澣”이라고 되어 있음)하면서 신숙주가 서문을 지은 시기를 한 달을 늦추어 새긴 것으로 판단된다.

36) 自此以下皆在貶所作(귀양시기에 지은 시).

37) 是年, 公以典校副令, 從聖節使鄭政堂, 入明(1384년 7월에 정몽주의 서장관이 되어 명나라에 갔을 때 지은 시).

38) 時公, 自明還, 在開京(명나라에서 개경에 돌아와서 지은 시).

39) 庚午夏, 公以政堂文學, 賀聖節, 入明(1390년 6월에 정당문학이 되어 명나라에 갔을 때 지은 시).

40) 公, 自明還開京(명나라에서 개경에 돌아와서 지은 시).

41) 壬申冬, 公以文下侍郎贊成事, 謝聖恩入明(1392년 조선개국 후 문하시랑찬성사로 명나라에 갔을 때 지은 시).

42) 公, 自明還開京(명나라에서 개경에 돌아와서 지은 시).

4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삼봉집」 권1-2(신수-015087-000)는 세조 11년(1465)에 간행된 「삼봉선생집」 권1-2이다. 성암고서박물관에는 「삼봉선생집」 권2-3, 7 등 3권2책(성암 4-715)이 소장되어 있다. 목록에는 태조 6년(1397) 간본으로 되어 있으나 서명과 권수로 보아 중간본이다. ; 간송문고한적목록([서울]: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67), 162, “삼봉선생집 권3-4의 1책.”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삼봉선생집」 권4-5의 「경제문감」 상하(일산貴 3648-70-31, 古貴3648-70-9)와 「삼봉선생집」 권7의 「불씨잡변」(古貴3648-70-10).

44) 봉좌문고 청구기호(167-3).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이 소장본의 microfilm이 있다. 杉浦豊治, 「蓬左文庫典籍録: 駿河御讓本」(一宮: 人文科學研究會, 1975), 139-140. ;

정문형은 강원관찰사로 부임<sup>45)</sup>한 이듬해인 성종 18년(1487)에는 중간 이후 모은 시부 100여 수와 『경제문감별집』 등을 120여장의 목판에 간행하였는데 이것이 중간속간본이다.<sup>46)</sup> 일본의 내각문고에 소장된 중간속간본의 일본사본에 따르면 정문형과 함께 江原道都事인 崔榮과 江陵大都護府教授인 崔自霽이 刊役을 주도한 사실<sup>47)</sup>을 알 수 있다. 이때 『경제문감별집』은 완전하게 수집하지 못한 채로 간행하였다. 그래서 정문형은 『경제문감별집』의 권미에 “이하부터 권질이 잔결되어 전체의 글을 보지 못하여 매우 한스럽다.”<sup>48)</sup>고 써 두었다.

한편 중간본과 중간속간본에 수록된 정문형의 발문은 <사진 1>과 같이 서로 다르며, 분량도 1장과 2장으로 차이가 있다. 두 발문의 내용을 대비하면 <표 1>과 같은데 간행시기와 의도가 달랐던 만큼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진 1> 중간본(오른쪽)과 중간속간본(왼쪽)의 발문의 첫면<sup>49)</sup>

- 千惠鳳, 『日本蓬左文庫韓國典籍』(서울: 지식산업사, 2003), 237-240.; 名古屋市教育委員會 編, 『蓬左文庫漢籍目錄』(名古屋市: 同會, 1955), 109.
- 45) 『成宗實錄』 196卷, 17年 10月 5日. “以鄭文炯, 爲資憲行江原道觀察使.”
- 46) 정문형, [중간속간본발문]. “厥後數十餘年間, 宦遊京外, 或採於州郡之樓題, 或得於僚友之所藏. 次安邊樓韻以下, 詩賦百餘首, 暨經濟文鑑別集 … 續刊百二十餘張, 合置于安東府. 成化二十三(成宗 18, 1487)年丁未, 春三月下泮, 曾孫資憲大夫行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文炯謹跋.”
- 47) 末松保和, “三峯集編刊考,” 『朝鮮學報』 第1輯(奈良: 朝鮮學會, 1951), 61.
- 48) 『삼봉선생집』 권9 권말. “自此以下, 卷帙殘缺, 未見全書, 深可恨.”
- 이 글은 삼간본인 정조 15년(1791) 간본에도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혹 중간속간본을 보지 않으면 마치 규장각학사들이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어 밝혀둔다.

<표 1> 중간본과 중간속간본의 발문 대비

세조 11년(1465) 중간본의 발문	성종 18년(1487) 중간속간본의 발문
<p>三峯詩文集, 心氣理三篇, 佛氏辨說, 經濟文鑑, 經國典, 我曾祖奉化伯公所著也. 公高麗王寅科進士, 少有大志, 力學強記, 早遊牧隱李先生之門, 一時豪傑如圃隱鄭先生, 陶隱李先生, 桐軒尹先生, 貞齋朴先生, 浩亭河先生, 陽村權先生, 楊若齋金先生, 師友講論, 所聞益廣, 所見益正, 發而爲言語文章者, 汪洋渾厚, 博大奇偉, 有古作者之風, 諸先生咸推讓之. 麗運既衰, 天命有歸, 推戴我太祖, 翊運開國, 經綸贊襄, (2자<sup>50</sup>) 結) 制禮作樂, 大抵皆出公之手.</p>	<p>三峯詩文集, 經濟文鑑, 經國典, 佛氏辨說, 心氣理三篇, 我曾祖奉化伯公所著也. 公高麗王寅科進士, 少有大志, 力學自強, 早遊牧隱李先生之門, 一時豪傑如圃隱鄭先生, 陶隱李先生, 桐軒尹先生, 貞齋朴先生, 浩亭河先生, 陽村權先生, 楊若齋金先生, 師友講論, 所聞益廣, 所見益正, 發而爲言語文章者, 汪洋渾厚, 博大奇偉, 有古作者之風, 諸先生咸推讓之. 麗運既衰, 天命有歸, 推戴我太祖, 翊運開國, 經綸贊襄, 立經陳紀, 制禮作樂, (2자<sup>51</sup>) 結) 皆出公之手, 經國典乃其大略也.</p>
<p>如詩文雜著特餘銷耳. 然觀此所著, 亦曷見立言立功之大者.</p>	<p>如詩文雜著, 特餘銷耳. 若夫佛氏辨說, 心氣理, 則發揮性情, 摺斥虛誕, 以明吾道異端之偏正, 真聖門之藩籬, 而具有功於名教大矣. 經濟文鑑, 則上自唐虞, 下至宋元, 逮及高麗, 編列其相業, 君道之得失, 可法可戒者, 又採聖賢之格言, 以附其後, 實可謂爲君爲臣之龜鑑, 而有關於治道者至矣, 非如諸家集只詩文, 工拙之如何耳.</p>
<p>諸篇舊有板本, 散落不完, 文炯今哀集爲一帙, 刊于安東府.</p>	<p>諸篇舊有板本, 散落不完, 文炯去甲申冬, 濫蒙世祖大王恩遇, 特受慶尙道觀察使, 哀集諸篇爲一帙, 刊于安東府. 厥後數十餘年間, 宦遊京外, 或採於州郡之樓題, 或得於僚友之所藏, 次安邊樓頭以下, 詩賦百餘首, 暨經濟文鑑別集, 欲刊之者有年, 而丙午冬, 又爲江原道監司, 到界之日, 始命工, 續刊百二十餘張, 合置于安東府.</p>
<p>嗚呼. 公有詩云, 只鎔不朽斯文在, 後日當生姓鄭人, 其期望後嗣者至矣. 不肖愧不克負荷, 聊壽斯文, 付此重望於子孫後世云耳. 其必有大雅君子, 有所取捨, 於其間者夫.</p>	<p>嗚呼. 公有詩云, 只渣不朽斯文在, 後日當生姓鄭人, 其期望後嗣者重矣. 不肖幸承家緒, 偶登科第, 輪至宰輔, 固已踰分. 然才不能, 以負荷先志, 聊壽斯文於將來, 付此重望, 於子孫後世云耳. 其必有大雅君子, 有所取捨, 於其間者夫.</p>
<p>成化元年乙酉秋七月上澣, 曾孫嘉善大夫行僉知中樞院事慶尙道觀察使黜陟使兼監倉安集轉輸勸農管學事提調刑獄兵馬公事 文炯跋.</p>	<p>成化二十三年丁未春三月下澣, 曾孫資憲大夫行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文炯謹跋.</p>

4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50) 立經陳紀.

51) 大抵.

이렇게 두 발문은 전혀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엄연히 별도의 발문인 것이다. 그런데 정조 15년(1791)에 『삼봉집』을 간행할 때 규장각학사들은 “홍무 정축년(1397)에 처음 간행되었고, 성화 정미년(1487)에 거듭 간행되었다”<sup>52)</sup>고 하여 세조 11년(1465)의 간행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규장각학사들은 중간속간본에 있는 발문을 “중간삼봉집발”이라는 발문제를 붙여놓았다.<sup>53)</sup>

이와 같이 규장각 학사들은 1397년에 아들 정진이 시문을 모아 간행한 『삼봉집』을 초간, 세조와 성종시기에 정문형이 간행한 『삼봉선생집』을 중간으로 보았던 것이다. 규장각학사들이 이 둘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된 것은 중간속간본에 있는 정문형의 발문 중에 “속간”이라는 용어<sup>54)</sup>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삼봉집』의 범례에서 밝혀 놓은 대로<sup>55)</sup> 규장각 학사들이 발문이 수록된 중간본 전부를 보지 못한 탓으로도 생각된다. 규장각 학사들이 중간본의 발문을 보았다더라면 여러 발문들과 마찬가지로 跋文題를 주어 『삼봉집』에 수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성종 18년(1487)의 중간속간본은 정문형이 “속간”이라고 하였듯이 중간본의 연속적인 각판사업임은 분명하다. 일찍이 스에마쓰 카즈요시(末松保和)는 중간속간본에 대해 “대부분의 판목은 옛 것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20여 장의 증보를 거쳤기 때문에 책으로서는 엄연히 별개”<sup>56)</sup>라고 하면서 증보된 120여 장에 대해 “追刊”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문형이 발문에서 “속간”이라고 하였으므로 속간본, 곧 중간속간본이라고 일컫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2) 『삼봉집』 범례1. “是集, 始刊於洪武丁丑, 重刊於成化丁未.”

53) 『삼봉집』 권14, 부록. 중간속간본에는 권8의 권미에 정문형의 발문이 있다.

54) 정문형, [중간속간본 발문](1487). “又爲江原道監司, 到界之日, 始命工, 續刊百二十餘張, 合置于安東府.”

55) 『삼봉집』(1791), 범례. “內閣抄本, 乃是全書, 而河浩甫字銘, 陣法等篇, 佚於抄本, 得之後孫, 分類收錄 … 抄本, 章段脫缺, 字句訛謬, 刊本, 亦頗不完, 最難攷正.”

56) 末松保和, “三峯集編刊考,” 『朝鮮學報』 第1輯(奈良: 朝鮮學會, 1951), 62.

### 3.2 중간속간본의 특성

현재 국내에 전하는 중간속간본<sup>57)</sup>은 권1<sup>58)</sup>과 권8<sup>59)</sup> 등이 있다. 권8의 『경제문감별집』은 속간할 때 새로 편입되었던 탓에 간사본이 더러 있고, 내용도 후일 『삼봉집』에 수록되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권1은 속간 당시 새로 편입된 詩賦와 시부의 배열상태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공개된 것으로는 유일하다. 일본의 京都府立綜合資料館에는 중간속간본 8권 모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sup>60)</sup> 속간할 때 증보한 부분인 “권제1의 제32장부터 54장까지가 결장”<sup>61)</sup>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간속간본의 완질로 알려진 일본 소장본은 권1-7은 중간본이고, 권8은 중간속간본인 셈이므로 완전한 중간속간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본문 앞에는 권근의 서와 성화 원년(1465) 을유 맹추에 쓴 신숙주의 서가 있다.”<sup>62)</sup>는 조사 기록도 중간본의 설명으로 판단된다. 원래 빠뜨린 것인지 후대에 결락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내 소장의 권1에는 신숙주의 서문 2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속간 당시 증보된 詩賦 등과 서지적인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얼마 전 보물 제1702호로 지정<sup>63)</sup>된 이 권1만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자료가 된다.

57) 중간속간본은 중간본 간행 이후 더 모은 시부는 권1에 증보하고, 경제문감별집은 권8에 새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 권1과 권8을 제외한 나머지 권2-7은 중간본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완질로 알려진 일본 호사(蓬左)문고에 전하는 중간본은 7권4책(권1, 권2-3, 권4-5, 권6-7 등 4책으로 분책)이고, 足利學校 소장의 중간속간본은 8권4책이다.

5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의 중간속간본 『三峯先生集』 권1의 한 책(귀811.081정도전사)은 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도서관측과 담당자에게 감사드린다.

59) 국립중앙도서관(일산貴3648-70-32)과 고려대학교 도서관(만송귀-351-8, 만송귀-351),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811.081-정도전사)에는 중간속간본 『삼봉선생집』 권8(경제문감별집)이 소장되어 있다.

60) 『足利學校遺蹟圖書館珍書目録』(東京: 一色活版所, 1911), 37. 『삼봉선생집』에 대한 설명으로는 “朝鮮本(鄭三峯의 詩文集)/ 成化二十三年丁未(1487)春三月下泮曾孫文炯의 跋文이 있다/ (卷首에 있는 시 한 수를 왼쪽에 적어 놓았다)”며 소개하고 있다. ; 심우준, 『日本訪書志: 海外所在古板本調査研究』(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472-473. ; 천혜봉, 『日本蓬左文庫 韓國典籍』(서울: 지식산업사, 2003), 240. ; 京都府立綜合資料館所藏 韓國典籍, 103번.

61) 심우준, 앞의 책, 473.

62) 심우준, 앞의 책, 472.



<사진 2> 오른쪽의 제30장(중간본)과 왼쪽의 제31장(속간본)

중간속간본 권1은 1465년의 중간본(제1-30장)에다 1487년의 속간본(제31-54장)을 합해 엮은 것이다. 곧 <사진 2>와 같이 제 1장의 첫 시인 關山月부터 제30장의 置書籍鋪詩并序의 10행까지는 중간본이고, 치서적포시병서의 11-12행이 있는 제31장부터 마지막 이색의 발문까지는 속간본인 것이다. 이 두 간본은 서지적인 형태가 완전히 달라 쉽게 구별된다. 정문형은 발문에서 “次安邊樓韻 이하 100여 수를 새로 수집해서 『경제문감별집』과 함께 속간한다.”<sup>64)</sup>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간속간본에 수록된 시부는 정문형이 말한 100여 수에 해당되는 작품들이다.

한편 중간본에는 치서적포시병서의 마지막 2행이 수록된 제31장 이후 5장이 더 있다. 이 6장에는 納氏曲, 靖東方曲, 文德曲, 次諸公韻, 次安邊樓韻, 題咸興館, 過文川, 渡錦江, 홍무 갑자년<sup>65)</sup>에 지은 李穡의 跋, 權仲和의 題, 周倬의 識, 張溥의 題三峯詩集, 또 다른 이색의 발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정문형은

63) 명칭(삼봉선생집 권1), 지정일(2011.2.25), 소유자(계명대학교).

64) 정문형, [중간속간본 발문](1487). “或採於州郡之樓題, 或得於僚友之所藏. 次安邊樓韻以下, 詩賦百餘首, 暨經濟文鑑別集 … 始命工, 續刊百二十餘張, 合置于安東府.”

65) 고려 우왕 10년(1384).

속간하면서 시문의 순서를 약간 바꾸어 놓았다. 곧 중간속간본이 시작되는 제31 장에는 중간본에 이미 수록되어 있었던 치서적포시병서의 마지막 2행인 11-12행부터 새겨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한 작품의 마지막 2행부터 속간하게 된 이유는 새로 수집된 致語와 夢金尺中腔詞 등 작품의 창작의도와 작품의 연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일찍이 정도전은 이러한 작품을 창작한 이유에 대해 “고려의 모든 퇴폐와 난관을 전하께서 모두 바로잡으셨으니 그 공덕은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마땅히 聲詩로써 퍼트리고 絃歌에 올려 듣는 사람이 聖德을 만에 하나라도 알도록”<sup>66)</sup>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정도전은 “무공곡을 통하여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여 백성들을 위무하는 공을 드러내었고, 문덕곡을 통해 문치를 통한 태평성대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으며, 또 退時口號 등의 구호와 치어를 통해 태평성대의 상서로운 조짐을 연출”<sup>67)</sup>하고자 한 것이었다.<sup>68)</sup>

아울러 여러 악장들은 연계성을 가진 작품들이었다. 그래서 “태조의 여말의 활약상을 드러내고 있는 무공곡 계열(납씨곡, 정동방곡), 문치를 통해 백성을 다스려나가는 문덕곡 계열, 궁중에서 춤과 노래로 잔치할 때 樂人이 부르던 致辭인 致語, 곡의 마디에 부른 창사인 몽금척중강사 등을 순서대로 이으면 태조를 중심한 ‘天命의 교체와 영웅의 탄생’이라는 구조가 드러나게”<sup>69)</sup>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문형은 납씨곡, 정동방곡, 문덕곡, 樂章并序, 受寶錄, 進時口號,

66) 『太祖實錄』 4卷, 2年 7月 26日. “門下侍郎贊成事 鄭道傳上箋曰 … 前朝之季 … 殿下皆正而定之. 以天道則如彼, 以人道則如此, 較功度德, 無與爲比. 是宜播之聲詩, 被之絃歌, 傳之罔極, 俾聞者知聖德之萬一焉.”

67) 김영수, “정도전 악장문학 연구”, 『동양학』 제34집(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3), 31.

68) 정도전이 만든 악장의 성격은 계획된 각본이자 의도적인 창작이라고 보기도 한다. 곧 김영수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의 성격을 띠고 있다.”(“정도전 악장문학 연구”, 『동양학』 제34집(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3), 17)고 하며, 조홍욱은 “납씨가, 정동방곡 등은 악장본래의 내용에 충실하지만 문덕곡, 몽금척 등은 태조의 덕을 앞세우면서 왕조변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긴 저자 자신의 바람을 담은 내용”(“정도전의 악장에 대한 일고찰”, 『어문학논총』(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9), 118)으로 보아 의도적인 창작이라고 보고 있다.

69) 김영수, “정도전 악장문학 연구”, 『동양학』 제34집(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3), 17.

退時口號, 夢金尺中腔詞 등의 차례로 편성하였던 것이다. 또한 납씨곡과 정동방곡에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던 태조의 무공인지를 곡명 아래에 새로 설명을 덧붙였다.

이렇게 작품의 창작 의도성과 연계성, 그리고 새로운 설명 등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납씨곡부터 새겨야 했다. 그런데 납씨곡이 시작되는 제31장에는 치서적포시병서의 마지막 2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 2행을 포함하여 새긴 것이다. 물론 치서적포시병서 이후 중간본에 이미 수록되어 있던 次諸公韻, 次安邊樓韻, 題咸興館, 過文川, 渡錦江 등은 장수가 바뀌었으므로 새로 수집한 시부에 앞서 배열하고 다시 새겼다.

한편 정문형은 중간속간본의 발문에서 중간본 간행이후 “수 십 년간 모은 시부 100여 수와 『경제문감별집』 등을 강원감사로 부임한 날 바로 공인에게 명령하여 120여 장을 속간하여 (중간본과 함께) 안동부에 합하여 두었다.”<sup>70)</sup>고 하였다. 그러므로 속간 때 증보한 내용은 시부 100여 수와 『경제문감별집』이고, 그 분량은 120여 장인 것이다. 국내 소장 권1의 속간본은 모두 24장인데 여기에 111수<sup>71)</sup>의 시부가 편입되어 있다. 이 중에서 중간본에 이미 편입되어 있었으나 다시 새긴 납씨곡, 정동방곡, 문덕곡, 차제공운, 차안변루운, 제함흥관, 과문천, 도금강 등 8수를 제외하면 103수가 된다. 이 숫자는 정문형이 기록한 100여 수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므로 속간할 때 증보한 시부는 권1에 모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시부가 새로 편입된 권1의 속간본은 24장이고, 『경제문감별집』은 70장이다. 둘을 합해 94장이므로 120장을 새겼다는 정문형의 기록과는 26여 장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야 할 것 같다.

70) 정문형, [중간속간본 발문](1487). “厥後數十餘年間, 宦遊京外, 或採於州郡之樓題, 或得於僚友之所藏. 次安邊樓韻以下, 詩賦百餘首, 暨經濟文鑑別集, 欲刊之者有年, 而丙午冬, 又爲江原道監司, 到界之日, 始命工, 續刊百二十餘張, 合置于安東府. 成化二十三(成宗18, 1487)年丁未, 春三月下濬, 曾孫資憲大夫行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文炯謹跋.”

71) 致語는 進時口號와 退時口號 등 2수로, 獲奉鈍齋先生四詠은 4수로 나누어 계산한 숫자이다.

### 3.3 삼간본

중간속간본이 간행된 지 300여 년이 지난 정조 15년(1791)에는 규장각학사들이 저자의 저작을 분류 재편하고, 교정과 주석을 더하여 「삼봉집」이라는 서명을 붙여 14권7책으로 간행하였다.<sup>72)</sup> 이것이 삼간본이다. 당시 「삼봉집」의 편성과 수정 보완 사실은 이 간본의 범례에 잘 소개되어 있다. 또 각 권의 머리에는 각 저작마다 목록제에 이어 목차를 간략히 기술해 두는 등 서지기술 형식도 정연하게 하였다.

그러나 수정 보완된 사례와는 달리 저본으로 삼은 抄本과 간본이 완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sup>73)</sup> 중간본, 중간속간본과 대비해보면 문자가 일치하지 않은 곳이 제법 있다. 이러한 사례는 규장각 학사들이 바로 잡은 부분도 있지만 底本을 완전하게 입수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佛氏雜辯」을 「佛氏雜辨」으로 고치는 등 오류도 없지 않았다.<sup>74)</sup> 또한 중복되어 생략한 작품도 있는데 걸식론이 이에 해당한다. 곧 중간본에 별도로 수록되어 있던 걸식론을 「불씨잡변」 중의 불씨걸식지변과 중복이 된다고 하여 빼어버린 것이다.<sup>75)</sup> 현재 걸식론은 중간본<sup>76)</sup>과 「동문선」에 수록되어 전하는데 두 본간의 내용은 동일하다. 그래서 삼간본에 수록된 「불씨잡변」 중의 불씨걸식지변과 이 걸식론을 대비해 보니 네 곳에서 문자의 차이가 있었다. 첫째는 舍衛에 대한 주석이 있는 점,<sup>77)</sup> 둘째는 “以男女居室爲非道, 以男畊女織爲不義”<sup>78)</sup>를 “以男女居室爲不義”<sup>79)</sup>로 축약해 놓은 점, 셋째는 “又”와 “人”이 추가되어 있는 점,<sup>80)</sup> 넷째는 걸식론에서는 마지막

72) 「삼봉집」, 삼간본. ; 「삼봉집」 영인표점한국문집총간 5(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0).

73) 「삼봉집」(1791), 범례. “內閣抄本, 乃是全書, 而河浩甫字銘, 陣法等篇, 佚於抄本, 得之後孫, 分類收錄 … 抄本, 章段脫缺, 字句訛謬, 刊本, 亦頗不完, 最難攷正.”

74) 오용섭, “「불씨잡변」 초간본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제33집(서지학회, 2006).

75) 「삼봉집」, 범례. “如佛氏乞食辨, 疊錄於雜題中, 故刪正.”

76) 「삼봉선생집」 권7(고귀3648-70-1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77) “按舍衛, 波斯國名.”(「삼봉선생집」에는 이 주석이 없음.)

78) “夫釋迦牟尼者, 以男女居室爲非道, 以男畊女織爲不義.”

79) “夫釋迦牟尼者, 以男女居室爲不義.”

80) “無父子君臣夫婦, 則又非守先王之道者也. 此人雖一日食一粒, 皆苟食也.”

에 “故論之”와 같이 논하는 것으로 끝냈지만 불씨걸식지변에서는 변론을 하기 위한 문체, 곧 “故於此論而辨之”로 바꿔 놓은 점 등이다. 이 중 첫째의 주석은 규장각 학사들이 주석을 붙인 것으로 이전의 간본에는 없던 것이다. 둘째, 셋째, 넷째는 「삼봉선생불씨잡변」과 중간본에 수록된 「불씨잡변」의 것을 충실히 옮겨 놓기 만하였다. 만일 중복된다는 이유로 빼어버리려고 한다면 중복 대상 간에 문자가 어긋나는 곳이 있는지를 살피고, 혹 있다면 불씨걸식지변에 그 내용을 밝혀 놓아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학사들은 최소한 걸식론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적이나 주석을 붙이지 않았다.

한편 이 목관은 1914년에 결판을 보각한 뒤 인쇄한 일이 있었다.<sup>81)</sup> 곧 대구 龍仁寺<sup>82)</sup>에 소장되어 있던 목관이 판고가 거의 무너지자 廟庭으로 移運의 허락을 받았는데 목관을 조사해보니 34장이 부족하여 이를 보충하여 속간하게 되었다.<sup>83)</sup> 이 때 賜諡教旨와 李憲璫이 지은 致祭文<sup>84)</sup>도 따로 2장으로 엮어 권말에 별도로 첨부하고, 그 연유도 남겨 두었다. 이렇게 보충하여 완전하게 만든 목관을 1921년에 회동서관에서 간행하였고, 1935년에는 봉화정씨대동보소에서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 목관 14권 228판은 현재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 2리에 있으며, 1986년 5월 7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2호(명칭: 三峰集木版)로 지정되었다.<sup>85)</sup>

정조 15년(1791)의 삼간본은 정조의 명령으로 규장각학사들이 재편집하여 간행하였으므로 판관인 셈이다. 이후 「삼봉집」은 이 간본을 바탕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곧 일제시기인 1916년에는 조선고서간행회에서 이 간본을 영인 발행<sup>86)</sup>

81) 「삼봉집」, 1914년 삼간속간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D03B-0472).

82) 徐有渠, 「鏤板考」 권제6(「韓國의 冊板目錄(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5), 1082)에는 “三峯集 十四卷”, “當 壬子(정조 16, 1792)奉教重刊 大丘龍淵寺藏”과 같이 용인사가 아니라 용연사로 되어 있다.

83) 「삼봉집」, 1914년 삼간속간본의 권말의 [발문]. “定宗辛亥(1791), 命重刊, 仍藏板, 于大邱府南龍仁寺者, 一百二十二年, 壬子(1912), 板閣傾覆, 翌年請願於道長官, 承認移運, 計其數零三十四張, 賜諡教旨, 與致祭文, 并補續刊, 崇奉于廟庭. 時甲寅(1914)冬十月 日也.”

84) “維同治十一年, 歲次壬申(1872), 四月日, 甲寅朔二日乙卯.”

85) 「문화재수리보고서: 2000년도」, ([수원]: 경기도, 2000, 36-38, 178-181)에 따르면, 이 목관을 수장하고 있는 판각고 등은 1998년에 보수되었다.

86) 「삼봉집」,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16).

한 이후, 대한민국 이후에도 수차례 영인본이 간행되었다. 먼저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 간본을 저본으로 삼은 활자본 「삼봉집」을 한국사료총서(제13)로 수차례 간행하였고,<sup>87)</sup>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고전국역총서<sup>88)</sup>와 한국문집총간의 하나로 영인하여 간행하였다.<sup>89)</sup> 또 이전의 영인본보다 확대하여 두 책으로 만들기도 하고,<sup>90)</sup> 때로는 「불씨잡변」만을 분리하여 「삼봉집」이라는 서명으로 총서에 편입하기도 하였다.<sup>91)</sup>

한편 고전국역총서에 수록된 영인본<sup>92)</sup>은 권1-4의 시문, 잡제와 권11-12의 「경제문감별집」 등 6권은 삼간본과 동일하나 나머지는 권차와 수록내용이 다르다. 권차와 수록내용이 다른 8권은 권5의 「불씨잡변」(삼간본에는 권9, 이하 권수는 삼간본), 권6의 「심기리편」과 「심문·천답」(권10), 권7의 「진법」과 습유(권13), 권8의 부록(권14), 권9-10의 「경제문감」 상하(권5-6), 권13-14의 「조선경국전」 상하(권7-8) 등이다.<sup>93)</sup> 전체의 체재나 구성을 볼 때 이와 같은 권차별 내용편성은 매끄럽지 못해 보인다. 그러나 이 영인본은 별개의 간본이 아니다. 곧 권차와 수록내용이 동일한 권은 삼간본을 그대로 사용하고, 다른 8권은 이 목판을 이용하되 권차표시 부분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당시 이렇게 간행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삼간본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이 영인본의 인쇄상태를 보면 규장각 소장인 태백산사고 소장본, 정족산사고 소장본보다 뒤에 인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미 고전국역총서에 수록되어 보급되었기 때문에 혼란을 없애고, 또 삼간본과의 관계를 알리기 위해 소개한다.

87) 「삼봉집」(한국사료총서 제13)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55, 1961, 1971, 1974).

88) 「국역삼봉집」 고전국역총서 120-12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89) 「삼봉집」 영인표집한국문집총간 5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0).

90) 「삼봉집」 한국역대문집총서 101-102 (서울: 경인문화사, 1990). ; 「삼봉집」 상하 (서울: 삼봉정도전선생기념사업회, 2009).

91) 「한국유학자료집성」 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0).

92) 「국역삼봉집」 고전국역총서 120-12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93) 국역본 간행당시 영인 원문이 삼간본인 정조 15년(1791) 간본과 편성체재가 다르다는 것을 간행이전에 알은 듯하다. 그것은 권5-10, 권13-14와 같이 권차와 내용이 다른 권에 대해서는 영인 원문의 목차를 만들면서 해당권의 권수표시 아래에 괄호를 두고 “原集 卷之〇”와 같이 표시해 두었기 때문이다.

#### 4. 권차별 내용편성

앞에서 두루 살폈듯이 『삼봉집』은 처음 정도전의 아들 정진이 정도전의 뜻을 받들어 시문 2권을 모아 『삼봉집』이라는 서명으로 간행한 것이 초간본이다. 이후 세조 11년(1465)에는 시문, 잡제 외에 『진법』, 『경제문감』 상하, 『조선경국전』, 『불씨잡변』, 『심기리편』, 『심문·천답』 등의 저작을 모아 안동에서 간행하였으니 중간본이다. 중간 이후 22년이 지난 성종 18년(1487)에 정문형은 더 모은 시부를 권1에 편성하고, 『경제문감별집』은 권8에 편성하는 등 120여장을 속간하였으니 이것이 중간속간본이다.

정조 15년(1791)에 규장각 학사들은 『삼봉집』을 14권으로 재편하면서 내용의 편차를 재구성하게 된다. 곧 책머리에 권근의 서, 신숙주의 후서, 범례, 총목 등을 두고, 권1-4에는 시문,<sup>94)</sup> 권5-6에는 『경제문감』 상하, 권7-8에는 『조선경국전』,<sup>95)</sup> 상하, 권9에는 『불씨잡변』, 권10에는 『심기리편』, 『심문·천답』, 권11-12에는 『경제문감별집』 상하, 권13에는 『진법』, 습유, 권14에는 부록으로 편성하였다. 이때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별집』은 상하권으로 분권하였다. 이 간본은 1914년에 부족한 목판 34장을 보충하고자 속간하면서 賜諡教旨, 치제문과 발문 등이 증보되었다. 역대 간본별로 권차별 내용편성을 보면 <표 2>와 같다.

94) 권1-4에 수록된 시문들은 이전 간본에서 시기 순으로 배열한 것과는 달리 문체별로 분류하여 재편해 놓았다. 각 권별로 수록된 시문의 문체와 수량에 대해서는 여러 영인본과 도서관 소장본에 대한 해제가 도움이 된다.

95) 『조선경국전』은 이후 여러 법전의 효시가 되었으며, 현재는 삼봉집 권7, 8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조항덕, “삼봉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연구,” 『한문고전연구』 (한국한문고전학회, 2005), 277.).

<표 2> 「삼봉(선생)집」 역대 간본의 권차별 내용편성<sup>96)</sup>

구분	태조6년(1397) 초간본	세조11년(1465) 중간본	성종18년(1487) 중간속간본	정조15년(1791) 삼간본	1914년 <sup>97)</sup> 삼간속간본	
권1	시문	시, 악장, 부	좌동(증보)	賦, 詩 <sup>98)</sup>	좌동	
권2	시문	잡제	좌동	詩, 詞, 樂章 <sup>99)</sup>	좌동	
권3		잡제, 진법	좌동	疏, 箋, 書, 啓, 序	좌동	
권4		경제문감 상	좌동	記, 說, 題跋, 傳, 行狀, 墓表, 祭文, 策題, 銘, 贊	좌동	
권5		경제문감 하	좌동	경제문감 상	좌동	
권6		조선경국전	좌동	경제문감 하	좌동	
권7		불씨잡변, 심기리편, 심문·천답	좌동	조선경국전 상	좌동	
권8				경제문감별집	조선경국전 하	좌동
권9				불씨잡변	좌동	
권10				심기리편, 심문·천답	좌동	
권11				경제문감별집 상	좌동	
권12				경제문감별집 하	좌동	
권13				진법, 습유	좌동	
권14				부록	부록, 賜諡教旨·致祭文·발문(속간보충)	

## 5. 결 언

정도전은 고려말기에 「심문·천답」을 저술하기 시작하더니 조선건국 이후에는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경제문감별집」, 「진법」, 「심기리편」, 「불씨잡변」 등을 지속적으로 완성하였다. 이러한 저작들은 정도전이 반역의 혐의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한동안 간행되지 못하였다. 다만 정도전의 생전에 간행된 2권의 시문집

96) 성종 18년(1487) 간본과 1914년 간본을 “속간”이라고 한 것은 당시 간본에 대해 각 발문에 서 “속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른 것이다.

97) 1921년의 회동서관 간본과 1925년의 봉화정씨대동보소의 간본도 동일하다.

98) 賦, 五言古詩, 七言古詩, 五言絶句, 六言絶句.

99) 七言絶句, 五言律詩, 七言律詩, 詞, 樂章.

인 『삼봉집』 만이 전할 뿐이었다. 이후 증손인 정문형이 중간하고, 이어 속간함으로써 정도전의 저술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정조의 명령으로 규장각 학사들이 저작을 재편집하고, 교정과 주석을 거쳐 다시 『삼봉집』이라는 서명으로 간행하였다. 이렇게 수차례 간행되면서 서명은 물론 권차별 수록내용도 바뀌게 되어 혼란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삼봉집』의 역대 간행사실과 권차별 내용편성에 대해 살핀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삼봉집』은 전후 3차례의 간행이 있었다. 곧 태조 6년(1397)에 아들 정진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시문을 2권으로 엮어 『삼봉집』이라는 서명으로 간행한 것이 초간본이다. 세조 11년(1465)에 증손인 정문형이 시문과 저술을 7권으로 엮어 『삼봉선생집』이라는 서명으로 간행한 것이 중간본이고, 성종 18년(1487)에 중간이후 모은 시부와 『경제문감별집』 등 120여장을 간행한 것이 중간속간본이 된다. 정조 15년(1791)에는 규장각 학사들의 주도로 다시 『삼봉집』이라는 서명으로 간행한 것이 삼간본이다. 1914년에는 삼간본의 결판과 賜諡教旨, 치제문 등을 보충하고자 약간을 속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둘째, 중간본(1465)과 중간속간본(1487)의 권미에는 정문형의 발문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중간본의 발문이 1장인데 비해 중간속간본은 2장으로 내용이 더 보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삼간본(1791)에는 중간속간본의 발문만 “중간삼봉집발”이라는 제명으로 수록되어 있고, 중간본의 발문은 없다. 그래서 중간본의 발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삼간본에서 중간본의 발문을 수록하지 않은 것은 범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완전한 『삼봉집』을 입수하지 못한 탓이거나 혹 규장각 학사들이 정밀하게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현재 중간본과 중간속간본은 일본에 완질이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소장의 중간속간본의 권1에는 속간본 24장이 결락되어 있다고 하므로 완전한 중간속간본이 아니다. 다행히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소장된 중간속간본 권1의 한 책을 통해, 속간 당시 증보된 100 여수의 시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간본과 다르게 작품을 배열한 사실도 알 수 있다. 중간속간본에서 배열 순서를 바꾼 이유는 태조의 등장과 조선의 건국이 천명임을 밝히고자 한

것이였다.

넷째, 삼간본(1791)에서는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별집」은 상하권으로 분권하고, 시문을 2권에서 4권으로 늘리고, 「진법」과 습유는 권3에서 권13으로 옮기고, 부록은 권14에 편성하는 등 저술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또 결식론은 불씨결식지변과 중복이 된다면 빼면서도 내용을 정확히 살피지 않았고, 중간본의 발문 역시 수록하지 않은 부족함이 있다. 그러므로 그의 저작이나 간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삼봉집」과 함께 「삼봉선생집」도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조 15년(1791)에 간행된 「삼봉집」과 권차별 내용이 다소 다르게 편성되어 고전국역총서에 수록된 영인본의 원간본은 별개의 「삼봉집」 간본이 아니다. 곧 권차와 내용이 동일한 부분은 정조 15년(1791) 간본을 그대로 간인하였고, 다른 부분은 권수제와 권차부분 등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 <참고문헌>

### 1. 원전 및 자료

「태조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봉화정씨대동보」. 서울: 봉화정씨대동회, 2002.

「한국의 책판목록」 상하. 서울: 保景文化社, 1995.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http://people.aks.ac.kr>>.

한국학자료센터. <<http://www.kostma.net>>.

간송문고한적목록. [서울]: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67.

「蓬左文庫漢籍目錄」. 名古屋市: 同會, 1955.

足利學校遺蹟圖書館珍書目錄. 東京: 一色活版所, 1911.

## 2. 저서 및 논문

- 정도전. 『삼봉선생집』. 세조 11년(1465) 중간본.  
『삼봉선생집』 권1. 성종 18년(1487) 중간속간본.  
『삼봉집』. 정조 15년(1791) 삼간본.  
『삼봉집』. 정조 15년(1791) 삼간속간본.  
『삼봉선생불씨잡변』. 세조 2년(1456) 간본.  
『삼봉집』. 경성: 조선고서간행회, 1916.  
『삼봉집』. 한국사료총서 제13.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61.  
『삼봉집』. 한국역대문집총서 101-102. 서울: 경인문화사, 1990.  
『삼봉집』. 영인표점한국문집총간 5.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0.  
『국역삼봉집』. 고전국역총서 120-12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삼봉집』 上下. 서울: 삼봉정도전선생기념사업회, 2009.  
『한국유학자료집성 1』.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0.
- 금장태. 『조선전기의 유학사상』.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문철영. 『정도전연구논저목록』 상하. 서울: 새와 나무, 2009.
- 심우준. 『日本訪書志: 해외소재고판본조사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오용섭. 『돌려받지 못한 책들』. 서울: 경인, 2008.
- 정병철 편역. 『증보삼봉집』.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9.
- 천혜봉. 『日本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지식산업사, 2003.
-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개정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衫浦豊治. 『蓬左文庫典籍叢録:駿河御讓本』. 一宮: 人文科學研究會, 1975.
- 김건곤. “해동문헌총록 소재 고려문집 연구.” 『장서각』 제18집(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김영수. “정도전 악장문학 연구.” 『동양학』(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3).
- 김인호. “정도전의 역사인식과 군주론의 기반.” 『한국사연구』 제131호(한국사연구회, 2005).
- 도현철. “정도전 『경제문감』의 주자 글 援用과 그 의도.” 『실학사상연구』 10·11

- 합집(역사실학회, 1999).
- 박홍규. “정도전의 경제사상.” 『아세아연구』 제50권 3호(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7).
- 박홍식. “여말선초의 척불론쟁.” 『유교사상연구』 제11집(한국유교학회, 1999).
- 부남철. “조선 유학자가 불교와 천주교를 배척한 정치적 이유.”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1호(한국정치학회, 1996).
- 안재호. “『불씨잡변』에 드러난 정도전의 불교비판 분석: 주자학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동서철학연구』 제53호(한국동서철학회, 2009).
- 이상백. “삼봉인물고.” 『진단학보』 제2-3권(진단학회, 1935).
- 오용섭. “『불씨잡변』 초간본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제33집(서지학회, 2006).
- 이원명. “조선전기 정도전 사상 연구: 『심기리편』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8집(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 정낙찬. “삼봉 정도전의 교육사상.” 『교육철학』(한국교육철학회, 1996).
- 조항덕. “삼봉 정도전의 심문, 천답에 대한 고찰.” 『한문고전연구』(한국한문고전학회, 2004).
- 최상용. “정치가 정도전 연구.” 『아세아연구』 제46권 1호(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3).
- 한자경. “정도전의 불교비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우주 내에서 인간 심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한 논의.” 『불교학연구』 제6호(불교학연구회, 2003).
- 한형조. “주희와 정도전의 배불론.” 『철학』 제61집(한국철학회, 1999).
- 末松保和. “三峯集編刊考.” 『朝鮮學報』 第1輯(奈良: 朝鮮學會, 1951).

